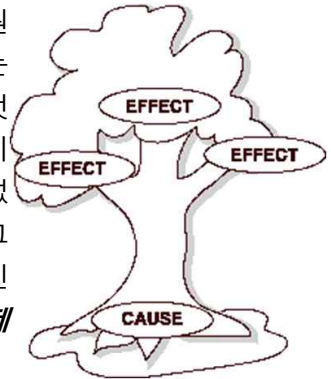


5) 원인과 결과의 법칙

현대과학은 성경적인 그리스도교의 창조론에 의한 세계관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의 근본적인 원리들은 유신론과 초자연적인 창조와 충분히 일관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모든 과학적인 원리 가운데에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것은 **인과율의 법칙¹⁾,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창조자에 대한 존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6:7~8)

매일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분리되어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안다. 모든 사건들은(영적이든 감정적이든 지적이든) 그 사건에 앞서 있는, 실제로 그 사건을 야기 시킨 하나 또는 몇 가지의 사건들을 추적해 낼 수 있다. 우리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원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누가 일으켰는가?, 언제 이것이 시작 되었는가?, 어디에서부터 이것은 나온 것인가? 어떻게 이 사건이 발생했는가?, 무엇이 이 사건을 야기 시켰는가?, 왜 이 사건이 발생했는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어떤 사건의 원인들을 추적할 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종착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건의 원인은 그 자체가 앞선 원인에 의해서 야기 되었고, 또 그 원인은 또 다른 원인의 원인이 되고 이것은 끝을 맺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원인을 갖지 않는 가능한 **제일원인의 문제에 직면**치 않으면 안된다.



모든 사건들은 어떤 원인²⁾을 갖게 되며 동일한 원인이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또는 적어도 암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정하고 있다. 이런 가정은 일반적으로 우주적인 원인의 원리 또는 자명한 공리라고 알려져 있다.

일부 지식인들은 이러한 정의를 **'신인동형동성론(Anthropomorphism)³⁾**이라고 간주하여 사용하기를 꺼리면서, 자연현상들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경험적인 연속성에 의해서만 단지 묘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방법의 핵심적인 근거는 다름 아닌 인과율의 법칙이다. 어떤 결과들은 원인들을 가지며, 그 원인에 의한 것이고, 동일한 원인은 동일한 결과를 산출한다. 심지어 유명한 "**불확정성의 원리(Principle of indeterminacy)**"까지도 통계학적으로 표현된 인과율을 내포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 과학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폐기된다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보편적인 법칙이며 모든 과학과 모든 인간 경험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성서의 기적과 같은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성경의 과학성을 불신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지만 기적의 발생은 인과율과의 모순이 아닌 단지 **고차원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다. 인과법칙은 초자연적인 가능성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격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증거**하고 있

1) 추수의 법칙이라고도 하며 속담에는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라는 속담과 일맥상통한다.
 2) 로우(C.A.Row)에 의하면 "어떤 원인은 앞서서 존재하는 어떤 것을 가리키며, 이것은 앞서서 존재하지 않던 어떤 것을 존재케하는 힘일 뿐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생산케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3) 18세기 때 포이에르바하는 신은 인간 오성의 투영물이라고 주장을 했다. 다시 말해 신은 인간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그려 놓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신인동형동성론(Anthropomorphism)이라 한다.

다.

인과법칙은 두 가지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최초의 원인이 아닌 원인들의 무한한 고리, 두 번째는 모든 원인 중 원인이 없는 일차적 원인이다.

첫 번째 가능성은 순환논리를 가져오며 만물의 기원에 대하여 우연이라는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결 고리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하나의 유한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전체의 과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결합된 결과이다. 그러나 연결고리들은 무한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의 원인들도 무한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선행하는 각각의 연결고리들은 이전의 고리보다 더 커야한다. 왜냐하면 원인에서 결과로 이행할 때에 어떤 것들의 일부가 항상 상실되기 때문이다(엔트로피의 법칙). 그러므로 결국 최초의 원인이 아닌 무한한 연결고리에서, 최초의 원인 아닌 원인은 본질적으로 무한한 것으로 뻗쳐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결국 최초의 원인, 즉 무한한 제일 원인일 수밖에 없다.

결국 두 번째 가능성이 대안으로 남게 되는데 만약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전 우주에 적용되고 있다면 여기에는 **원인을 갖지 않는 우주의 위대한 제일 원인이 있어야**하는 결론이 나온다. 제일 원인은 우주 안에서 모든 단일한 실제 물질을 생산하고 설명하는데 있어서 적절하며, 뿐만 아니라 이 우주 자체를 설명하는데 필요하다.



즉 제일 원인은 끝없는 시간(時間)에 있어서 영원(永遠)한 속성을 지녀야 하며,
무한한 공간(空間)에 있어서 제일 원인은 무소부재(無所不在)해야 하며,
무한한 에너지(能力)의 제일 원인은 무한한 능력, 즉 전능(全能)해야 하며,
무한한 복잡성의 제일 원인은 모든 복잡성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즉 전지(全知)해야 하며,
신비한 생명(生命)의 제일 원인은 살아있어야(生) 하고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심오한 도덕의 제일 원인은 의(義)롭고 거룩(聖)해야 하며,
우주적 아름다움(美)의 제일 원인은 심미적(審美的)이고 선(善)하며, 참 진리(眞理)이어야 하며,
끝없는 사랑(愛)의 제일 원인은 사랑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우주의 제일 원인은 모든 차원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 수 있으며 우주의 모든 차원을 뛰어 넘는다.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적절하고도 유일한 제일 원인이 존재하는 것을 성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심미적이고 공의로우며 영적이고 사랑이 충만한 인격을 가진 제일 원인이시다. 더 나아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둘 이상이나 많은 신들이 아닌 오직 한 분이여야 한다. 모든 만물은 시작을 가지고 있으며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추수의 법칙을 따르며 사랑은 나눌수록 기쁨과 행복은 커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